

# 무슬림 전도를 위한 기본원리에 대한 연구

김성운 \*

## I. 서론

## II. 역사적 사례연구

1. 대결적 유형
2. 전통적인 복음주의 유형
3. 제도적 접근 유형
4. 대화식 접근 유형
5. 상황화 유형

## III. 경험적 사례연구

## IV. 효과적인 무슬림 전도를 위한 기본원리

1. 사역자들의 경건한 삶과 태도
2. 상황화된 전도
3. 분명하고 담대한 복음제시

## V. 결론

---

\*고려신학대학원 선교학 교수

## ABSTRACT

### Study on the basic principles for Muslim evangelism

Sungwoon Kimk

It is a recent trend that growing interest of Korean Churches about Islam has led to growing interest in Muslim evangelism. The growth of evangelists and organizations targeting Muslims in Muslim society and in Korea reflects this phenomenon. However, such interest and efforts of evangelism do not appear to be fruitful. The reason ministers of activities among Muslims are ineffective may be due to the method of evangelism being used. Considering such situation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common reasons that motivate Muslims different in cultural and social backgrounds that come to Christ. The commonalities will be used to establish basic principles for Muslim evangelism. Historical and empirical cases are used to seek the basic principles for deriving a concrete method in a variety of situations. Five types seen in the history of Muslim evangelism were classified and researched. For empirical case studies, the findings of the recorded testimonies of Muslims and the results of studies of field workers were used.

Results from historical and empirical studies show that Muslims came to Christ by reacting to a variety of relational, intellectual, and supernatural motives. Looking at these results, the method used on a Muslim community may not yield the same results as on another community. Nevertheless, there are three factors that seemed to cause Muslims to convert to Christianity. The first factor is the impact of the mature attitudes and lifestyle of Christians. This study shows that the attitudes and lifestyle of Christians had a large influence on Muslims who were converted to Christianity. The second factor is contextualized evangelism. This study shows that even if they

had different backgrounds, they came to Christ when they heard the Gospel in a way that was culturally and religiously familiar. This way includes not only Islamic factors but also their image,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Christianity and the Church. The third factor is bold and clear presentation of the Gospel. This study shows that the attitudes and lives of Christians lead Muslims to come to Christ, but the ones who actually make a decision are impacted by the ones who testify of their faith with boldness and clarity. This may seem unusual to those who think that bold and open testimony creates only negative responses, but we need to examine the result reasonably. Despite the fact that the Bible says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Romans 10:17), if there is not a calling through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there will not be a conversion. What this study shows is that the method of evangelism which workers use is important and will result in effective evangelism towards Muslims if it goes together with the three aforementioned factors.

● **Key Words:** Convert, Contextualized evangelism,  
Muslim evangelism.

## I. 서론

최근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무슬림 전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무슬림 사회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와 교회와 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런 현상을 반영한다. 그러나 높아지는 관심만큼 무슬림 전도의 열매가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무슬림 전도는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여전히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sup>1</sup> 무슬림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와 회심하지 못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그 요인이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이슬람이 지니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성격이 복음전파와 무슬림들의 회심에 중요한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장애들은 불교권이나 힌두교권 등 종교적 근본주의가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세력을 떨치는 곳이나, 서구 세속주의 사회의 한 가운데도 존재한다.

그렉 리빙스톤(Greg Livingstone)은 무슬림 전도에 열매가 적은 이유를 17가지로 설명한다.<sup>2</sup> 17번째로 제시되는 ‘무슬림들의 위협으로 인한 사역자들의 두려움’을 제외하면, 다른 이유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는 무슬림 선교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 또는 잘못된 전략이고, 둘째는 무슬림들 가운데 활동했던 사역자들의 효과적이지 못했던 접근방법이다. 첫 번째 요인이 무슬림들에 대한 적대감과 그들의 구원에 대한 무관심을 만들어 낸다면, 두 번째 요인은 무슬림 전도의 빈약한 열매를 만들어낸다. 이런 두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 무슬림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만들어내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의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슬람과 관련된 오리엔탈리즘적인 논의들은 무슬림 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서구의 오리엔탈리즘 관점에서 무슬림 이해를 시도하는 것은 편협할 뿐만 아니라 무슬림 전도에 해로운 것이다. 그

---

1. 아직도 전체 선교사의 2% 미만이 무슬림 선교에 임하고 있다.

2. 그렉 리빙스톤, “왜 이처럼 열매가 적은가?,” 키스 스와트리 편저, 정옥배 역, 『인카운터 이슬람』 (서울: 예수전도단, 2008), 354-356.

러한 관점에서 이슬람과 무슬림들에게 접근하게 되면 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거나, 서구교회가 실패했던 승리주의(triumphalism)적 또는 우월주의적 태도에 바탕을 둔 십자군식의 선교를 되풀이하게 한다. 이런 식의 접근은 무슬림들로 하여금 교회와 기독교의 선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래된 편견과 오해를 강화시키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의심과 적대감만 키워가도록 할뿐이다. 한국교회와 사역자가 이런 전처를 되풀이 할 필요는 없다.

기독교인이 이슬람과 무슬림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는 무슬림 전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요인에 해당되고 따라서 그러한 관점을 논의하는 것이 무슬림 전도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본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아니다. 본 논문은 앞에서 언급한 두 번째 요인인 무슬림 전도방법에 관심을 두지만, 무슬림 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효과적인 '전도방법을 이끌어 내기위한 기본원리'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이유는 무슬림 선교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듯이 한 지역에 효과적인 전도방법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모든 무슬림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도방법에 대해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무슬림들은 그들이 처한 역사적 배경과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이슬람에 대한 해석에 차이를 보이고, 기독교와 복음에 대한 반응도 달리한다. 그래서 동남아의 한 무슬림 공동체에서 열매를 거둔 방법이 중동지역에 적용되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최근에도 계속 새로운 무슬림 전도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대부분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고 지역이나 복음에 대한 면역성의 정도에 따라 때로는 역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본 논문은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본원리를 탐구하기 위해 역사적 사례와 경험적 사례연구를 사용하였다. 역사적 사례연구는 존 마크 테리가 사용한 방법을 따랐으며,<sup>3</sup> 경험적 사례연구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 나아온 무슬림들의 기록된 간증들과 현장 사역자들의 연구결과가 사용되었다. 경험적 사례연구에는 필자가 국제단체 소속으로 19년간 무슬림들 가운데서 교회개척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들도 반영되었다.

---

3. 존 마크 테리, "무슬림 전도에 대한 몇 가지 접근법," 키스 스와틀리 편저, 정옥배 역, 『인카운터 이슬람』 (서울: 예수전도단, 2008), 342-347.

## II. 역사적 사례연구

기독교가 이슬람과 조우한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다. 그러한 시도들은 다양한 동기에서 나왔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도 다양하였다. 역사적으로 사용되었던 그러한 시도들은 무슬림 전도를 위한 기본원리를 연구하는데 유용한 정보와 교훈을 제공한다. 문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 하는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존 마크 테리가 사용한 유형론을 따랐다. 존 마크 테리는 역사적으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 왔던 무슬림 전도방법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sup>4</sup> 유형론은 주제의 지나친 단순화와 인위적인 도식화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어느 개인이나 단체 혹은 방법이 일정한 한 유형에 꼭 들어맞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유형론이 간단하면서도 전도방법과 같이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의 연속성과 의의를 파악하고 필요한 교훈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1. 대결적 유형

무슬림 선교역사는 기독교가 이슬람과 처음으로 조우했던 7세기부터 공개토론, 논쟁 그리고 노방설교와 같은 방법을 통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유형에는 8세기 칼리프의 고문으로 일했던 다메섹의 요한과 중세의 유명한 무슬림 전도자 레이몬드 룰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신교 선교에 있어서는 주로 18세기와 19세기에 식민 정부의 보호아래 무슬림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역자들이 이 유형의 방법을 사용했다. 존 마크 테리는 헨리 마틴과 칼 판더 그리고 성 크레어 티달과 같은 사람들을 이 범주에 포함 시키지만,<sup>5</sup> 헨리 마틴의 경우는 앞으로 살

---

4. Ibid.

5. Ibid., 342.

퍼볼 4번째 범주에 더 가까운 인물로 여겨진다.<sup>6</sup> 이러한 방법은 열매를 거두는 경우가 거의 없고 오히려 무슬림들의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증가시키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때때로 영적전쟁과 같이 형태를 달리하여 사용되기도 한다.<sup>7</sup> 사역자가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논쟁에서 이기거나 힘을 과시할 수 있을 런지 모르지만 영혼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 2. 전통적인 복음주의적 유형

전통적인 복음주의적 유형의 전도는 우정전도, 성경배포, 통신과정 등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오늘 날 여러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한 대표적 인물로는 23년 동안 아라비아 반도에서 사역했고 ‘무슬림들의 사도’ 또는 ‘불타는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무엘 즈웨머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초기에 대결적 유형의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사역의 후반기에는 일종의 ‘성취이론’을 사용하여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지만 예수님만이 그들의 참된 필요를 만족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역자들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의 핵심 내용을 반드시 강조하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교회에 참석하라고 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방법은 광범위하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유용한 측면이 있고 열매를 거두기도 하지만 회심자들을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와 단절시킨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즈웨머는 무슬림들을 극진히 존중하면서 복음을 전했다지만, 회심자들이 다른 무슬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슬람 공동체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했다.<sup>8</sup> 이 모델을 따르는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나아온 사람들이 무슬림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

6. 헨리 마틴의 생애와 일기를 통해, 그가 때때로 논쟁을 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논쟁을 통한 변증보다 우정과 개인적인 대화를 통한 전도가 더 효과적이라 믿고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존 사전트, 원광연 역, 『헨리 마틴의 생애와 일기』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1).

7. 대표적인 예가 1999년 터키 에베소에서 있었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피터 와크너가 주축이 된 이 모임은 터키에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에베소에 머물며 터키를 영적으로 지배하는 여신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고대 에베소 극장에서 만 명이상이 참석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으로 터키 교회와 신자들은 한 동안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8. Samuel M. Zwemer, *The Cross Above the Crescent* (Grand Rapids: Zondervan, 1941), 261.

보다는 교회에 소속이 되기를 원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그리스도에게 나아온 무슬림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단절되어 외국 사람들과 결혼하여 나라를 떠나거나 무슬림 이웃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이 방법은 어떤 지역들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심한 무슬림들을 공동체에서 뽑아내어 다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닉 립켄(Nik Ripken)은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온 신자들의 5%만이 자기 문화권에서 가정을 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다.<sup>9</sup>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로 이루어진 토착적인 교회의 형성과 그러한 교회들의 재생산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 3. 제도적 접근 유형

이 방법을 선호하는 단체들은 병원과 학교 그리고 고아원을 설립 운영하여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사역자들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행동이 말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이러한 방법은 무슬림들 가운데 합법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동정 그리고 겸손함을 보여줄 수 있고,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의 벽을 무너뜨려 복음에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경험적 사례연구는 기독교 단체가 설립한 학교나 병원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아온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에 와서는 NGO가 제도적 접근 유형의 한 형태로 사용되기도 한다. 제도적 접근은 편견을 극복하고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과도한 경비와 국가의 간섭과 같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는 힘들다.

### 4. 대화식 접근 유형

---

9. 존 마크 테리(2008), 343에서 재인용.

존 마크 테리는 대화식 전도 방법이 템플 게어드너에 의해서 개척되었다고 말한다.<sup>10</sup> 템플 게어드너는 아랍 음악과 시 그리고 연극을 사용해 이집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생을 바쳤던 인물이다. 대화식 전도방법은 우정에 기초하여 무슬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한다. 따라서 사역자들은 먼저 무슬림들이 신앙의 내용과 문화를 배워야하고 그것을 인식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해를 기초로 무슬림들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야한다.

대화식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슬림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나 내용에 타협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다. 무슬림 친구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우정을 쌓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정을 통한 전도가 실제적인 결실로 나타나는지는 의문이다. 최근에 와서 많은 사역자들이 이 방법을 따르고 있지만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는 미약하다.

## 5. 상황화 유형

복음이 무슬림들에게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무슬림들에게 익숙한 종교적, 문화적 형태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사역자들에게 단순히 전도 방법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방식에서부터 교회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의 변화까지 요구한다. 이 유형은 내부자 운동이나 낙타 전도법 등과 같은 형태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상황화된 전도’를 다루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도의 유형들은 각각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장점들과 단점들이 있다. 근래에 와서 대화식 접근과 상황화 유형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전통적 방법이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구분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유형론을 사용한 분석이 항상 그러하듯이 각각의 유형은 특정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유형의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한다. 따라서 사역자가 현장에서 한 유형의 방법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현대 무슬림 전도에서는 대결식 유형

---

10. 존 마크 테리(2008), 344.

은 지양되면서 전통적 복음주의 유형과 제도적인 유형에 상황화 유형이 접목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선교사들이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그러한 형태가 무슬림 전도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어떤 한 특정한 유형보다는 상황에 따라 각각의 유형이 지니고 있는 장점들을 사용하는 것이 무슬림 전도에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현장의 경험적 사례를 살펴보는 이유이다.

### III. 경험적 사례연구

무슬림들 가운데 사역하는 사람들이 소개하는 무슬림 전도방법을 살펴보면 사역지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곳에서는 외국 사역자들의 역할이 부정적으로 언급되는데 비하여, 어떤 곳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어떤 곳에서는 광범위하고 공개적인 복음전파가 열매를 맺는다고 보고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동일한 방법이 복음전파에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능력대결이 강조되는 곳이 있는가하면, 진리대결이 강조되는 곳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역하는 지역에 따라 효과적인 무슬림 선교방법에 대해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무슬림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도방법이나 전략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무슬림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이나 경험했던 전도방법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게 만든 공통분모가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공통분모를 무슬림 전도를 위한 기본 원리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출발하여 본 논문은 기독교로 회심한 무슬림들의 사례를 소개하는 네 가지 자료를 검토하였다. 터키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모아놓은 *Neden Hristiyan Oldular?*(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sup>11</sup> *Called from Islam to Christ*,<sup>12</sup> 『꿈은 길에서 좁은 길로』<sup>13</sup> 그리고 “이

11. Davut Muratoğlu, *Neden Hristiyan Oldular?* (Istanbul: Müjde yayıncılık, 2002).

12. Jean-Marie Gaudeul, *Called from Islam to Christ* (Crowborough: Monarch Books, 1999).

13. 데이빗 그린리 편저, 김요한 역, 『꿈은 길에서 좁은 길로』(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10).

주 노동자 무슬림의 회심동기와 이유에 대한 사례”<sup>14</sup> 등이 그것이다.

터키 회심자들의 사례는 비교적 최근에 그리스도인이 된 17명의 간증을 편집자의 해석이나 분석 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Called from Islam to Christ*는 저자가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그리고 프랑스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185명의 사례를 모아 그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인 순례의 과정을 몇 가지 카테고리 분류하여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무슬림들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무슬림 전도방법이나 전략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한국어로 번역된 『곧은 길에서 좁은 길로』는 편집자가 2003년 인도에서 열렸던 ‘Coming to Faith in Christ Consultation’에서 무슬림들의 회심과정을 발표한 자료와 논문을 모아 편집한 책이다. 이 책은 다양한 배경의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조사한 8개의 회심 과정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자료는 경기도 광주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서문 선교센터에서 발표한 출판되지 않은 사례연구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본 논문의 목적은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개인적 동기의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을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게 한 공통분모를 찾아 그것을 무슬림 전도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한 모든 사례들을 일정한 카테고리로 나누어 분석하지 않았다. 검토된 사례들은 조슈아 메시(Joshua Massey)가 관찰한 것처럼 무슬림들은 아주 다양한 동기와 형태로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며,<sup>15</sup> 다양한 관계적, 지적 그리고 초자연적인 동기들에 반응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한 특정한 무슬림 사회에서 효과를 거둔 전도방법이 다른 상황에서 있는 무슬림 사회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아온 무슬림들의 간증과 사례연구는 그들을 회심으로 이끈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있음을 보여준다.

14. 한유민, “이주노동자 무슬림의 회심동기와 이유에 대한 사례”, 미출판.

15. Joshua Massey, “God’s Amazing Diversity in Drawing Muslims to Christ,” *International Bullentin of Missionary Research*, Vol. 17 No. 1(2000), 3-12.

첫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삶이 미친 영향’이다. J. Dudley Woodberry가 40개국 58개 인종그룹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온 650명의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회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무슬림들의 회심에 있어 그리스도인의 삶과 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Woodberry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회심하는데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았다고 대답했고,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 이어서 ‘기적들과 하나님의 능력’, ‘치유’, ‘이슬람에 대한 불만’, ‘꿈과 환상’ 등과 같은 대답이 그 뒤를 이었다고 보고한다.<sup>16</sup> 100%가 무슬림인 한 동남아의 미전도 종족 가운데 기독교로 회심한 118명을 대상으로 한 현장연구 역시 무슬림 전도에서 기독교인의 삶의 증거가 가지는 중요성을 보여준다.<sup>17</sup>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인을 매도할 목적으로 신자로 위장해 교회로 잠입했다가 회심한 한 터키 언론인의 간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꾸며낸 거짓 기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음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기독교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확신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간증한다.<sup>18</sup> 대학원을 마치고 한국에 이주 노동자로 왔다가 회심한 서남아시아 출신의 한 무슬림은 기독교인의 삶과 봉사과 섬김에 감동을 받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간증한다.<sup>19</sup>

둘째는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복음의 내용이다. 무슬림들의 회심의 다양한 양상들에 대해 조사한 데이빗 그린리(David Greenlee)와 릭 러브(Rick Love)는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각각의 상황은 다르지만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가치들이 복음전달의 수단들과 중대하게 조화되는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왔다고 결론을 내린다.<sup>20</sup> 이런 사실은 터키 회심자들의 대부분이 꾸란

16. J. Dudley Woodberry,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나아오는 무슬림들에 관한 세계적 전망,” 데이빗 그린리 편저, 김요한 역, 『꿈은 길에서 좁은 길로』(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10), 47-48.

17. P.I. Barnabas “초대형 미전도 종족에서의 극소수,” 데이빗 그린리 (2010), 262.

18. Davut Muratoğlu, (2002) 35-59.

19. 한유민, “이주노동자 무슬림의 회심동기와 이유에 대한 사례,” 미출판.

20. David Greenlee and Rick Love, “거울을 통하여 보는 회심: 무슬림들과 회심의 다양한 양상들,” 데이빗 그린리 (2010), 84.

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기까지 상당기간 꾸란과 성경의 내용을 비교했다는 간증을 통해서 뒷받침된다. 진 마리 고돌(Jean-Marie Gaudeul)이 소개하는 사례들 역시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데 꾸란의 내용과 그들이 이슬람을 통해 배운 죄와 심판, 구원 그리고 알라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시된 복음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사례연구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태도가 무슬림들을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게 하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한 것은 담대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크리스텔 에릭(Christel Eric)은 8명의 그리스도께 나아온 아프리카 무슬림들의 회심과정을 소개하는데, 그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와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기까지의 과정은 서로 달랐지만 회심을 하게 된 주된 원인은 모두 주위 사람들의 담대하고 분명한 복음 증거였다.<sup>21</sup> 덴 맥베이(Dan Mcvey)가 아프리카 ‘지집바’ 무슬림 종족 가운데서 회심한 1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69%가 공개적으로 제시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sup>22</sup> 무슬림들에게 공개적이고 담대한 복음의 증거가 역반응을 일으킨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결과를 회의적으로 받아들일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롬10:17)고 말씀하고 있으며, 복음 증거를 통한 부르심이 없으면 회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에게 회심한 경험적 사례연구의 결과들은 사역자들이 사용하는 전도 방법이 중요하지만, 어떤 유형의 전도 방법을 사용하든지 위의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무슬림 전도의 기본원리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한다.

---

21. Christel Eric, “장애가 다리가 되어: 아프리카인들이 믿음으로 나아오는 단계에 관한 설명,” 데이빗 그린리 (2010), 197-219.

22. Dan Mcvey, “서아프리카 ‘지집바’ 종족의 무슬림 배경 신자 교회들 가운데 복음 전도적 성장의 장애들,” 데이빗 그린리 (2010), 276.

## IV. 효과적인 무슬림 전도를 위한 기본원리

### 1. 사역자들의 경건한 삶과 태도

한 무슬림이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회심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전도를 사용하시며 전도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전도는 한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와의 만남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므로 전도의 방법과 내용 못지않게 전하는 사람의 삶과 태도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별히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없고 기독교에 대해 잘못된 선입관과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무슬림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과 태도는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게르하르트 넬스(Gerhard Nehls)는 그의 책 『무슬림 전도의 전제와 원리』에서 “우리의 태도가 무슬림과의 관계와 궁극적으로는 진실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sup>23</sup> 찰스 테버(Charles Taber)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선교사들은 승리주의를 버리고 무슬림들과 그들의 신앙과 생활 방식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감사하며 그들에게 민감해지라. 그렇지 않는 태도를 드러내는 선교는 복음을 무용지물로 만들며 잘못 전하게 된다”라고 권고한다.<sup>24</sup>

이러한 권고는 선교역사에서 일어났던 일과 선교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을 평가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무슬림 선교역사는 열매를 맺지 못한 사역의 배후에는 사역자들의 부적절한 삶과 태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렉 리빙스턴은 헨리 마틴 이전에는 무슬림들을 회심시키기 위한 대부분의 노력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운명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동기로 인한 것이었다고 평가한다.<sup>25</sup> 물론 오늘날

23. Gerhard Nehls, *Premises and principles of Muslim Evangelism* (Bombay: Life Challenge, 1991), 241.

24. Charles R. Taber, “Contextualization: Indigenization and/or Transformation,” *The Gospel and Islam: A 1978 Compendium*, ed. Don M. McCurry (Monrovia, CA: MARC, 1979); 150. 필 파살, 『무슬림 전도의 새로운 방향』, 채슬기 역(서울: 예루살렘, 2003), 156에서 재인용.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슬림들의 문화와 신앙을 존중하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어 살아가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흔치 않다. 여전히 많은 사역자들이 자민족,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슬림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은 복음이지 우월의식에 젖은 승리주의적인 태도가 아닌데도 말이다.

필자가 살펴본 사례연구들은 사역자들의 삶과 태도가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진 마리 고돌(Jean-Marie Gaudeul)의 연구는 몰라(*mullah*)나 이맘과 같이 이전에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무슬림 지도자들을 기독교로 회심하게 만든 것은 기독교인들의 삶을 통한 ‘빛나는 증거’(radiant witness)였음을 보여준다. 칼리파 알 가프시(Khalifa al Gafsi)라는 무슬림은 그가 만났던 한 기독교인 부부에게 큰 영향을 받고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회심의 계기가 되었고, 기독교인들을 끔찍이도 혐오했던 사에드박사(Dr Sa'eed)라는 한 이란 몰라는 그가 페르시아어를 교습했던 한 개신교 목사가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감동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그리스도에게 나아왔다.<sup>26</sup> 찰스 마쉬는 여선교사 앞에서 복음서를 찢고 모욕했던 시무사(Si Musa)라는 꾸란 선생이 회심하게 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를 변화시킨 것은 “선교사의 인격이었다. 그 후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sup>27</sup>

이런 사례들을 소개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무슬림들을 전도하는 일에 생애를 바친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사랑과 겸손의 태도를 강조한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겸손의 태도가 무슬림들의 마음을 열리도록 하는 것은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종교적 경건함의 척도 중의 하나가 겸손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터키 무슬림 친구들은 필자에게 이스탄불 블루 모스크의 입구에 걸려 있는 무쇠로 만들어진 체인을 가리키면서 “오스만 황제도 말을 타고 오다가도 여기에 오면 내려서 걸어갔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했다. 그것이 이슬람이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곤 했다.

25. 그렉 리빙스턴(2008), 355.

26. Jean-Marie Gaudeul(1999), 128-134.

27. 찰스 마쉬, 조은혜 역, 『사랑으로 가능한 길』(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1995), 110.

우리가 무슬림들을 만날 때 진리에 대한 논쟁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성경의 변질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공격적인 질문을 던져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문을 받고 논쟁하거나 토론을 할 때 진지하고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주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논쟁에서 이기려고 집착하다보면 무슬림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고하게 해서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한다. 논쟁에서는 이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잃게 된다. 그리고 논쟁에서 무슬림의 입을 막고 승리해서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경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터키에서 만난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먼저 자신들의 주장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었을 때 필자가 설명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여주었다.

겸손과 함께 중요한 것은 사역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독교가 이슬람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이슬람의 알라와 다른 점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무슬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찰스 마쉬는 그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행동으로 보여 질 때 그들의 의심은 점점 사라지고 광신적 무슬림의 고집은 우호적으로 바뀌어 진다. 수백 개의 마을에서 나는 환영을 받았고 메시지가 받아들여졌다.”<sup>28</sup>고 말하고 있다. 즈웹머 역시 “40년 경험 후에 내가 확신하는 것은 무슬림들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길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다.”<sup>29</sup>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무슬림 전도자들은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실제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사역의 우선순위에 두어야만 한다.

한 무슬림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회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회심한 무슬림들의 간증은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데 오랜 탐구의 시간과 고통스러운 내면의 갈등을 겪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회심자들은 내면적 갈등과 사회적 압력을 이겨내고 결단을 내리는데 수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필자의 도움으로 세례를 받았던 한 형제는 오류를 찾아내고자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였지만 그리스도께 나아오는데 10년의 갈등과 고뇌의 시

---

28. Ibid., 97.

29. Samuel M. Zwemer(1941), 246.

간을 필요로 했다. 그의 장인이 이맘이었기 때문이다. 교사로 일하는 또 다른 한 형제는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뇌 중이다. 사역자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빠른 결단과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무슬림들의 이와 같은 고뇌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대하면서 함께 인내해야 한다. 무슬림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역자만이 그리스도로 나아오는 그러한 순례의 과정을 함께할 수 있다.

## 2. 상황화된 전도

무슬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무슬림 전도의 열매가 빈약한 이유 중의 하나는 무슬림들 가운데 활동했던 사역자들의 효과적이지 못했던 접근방법 때문이다. 무슬림 선교역사는 논쟁이나 자문화 중심의 전도가 결실을 거두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필자가 살펴본 사례연구들은 정통 이슬람에서 신비주의 민속 이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배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에게 나아온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을 자신들에게 익숙한 이슬람용어들로 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사례들은 무슬림 전도에서 ‘상황화된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황화된 전도는 무슬림 전도에 있어서 문화적인 장애가 제거되고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나 내용 그리고 형식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만 무슬림들이 자신의 문화 내에서 회심을 하고 주님을 따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다.

상황화된 전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찍부터 무슬림 선교역사에서 상황화된 전도를 통하여 많은 무슬림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압둘 마시(Abdul Masih)와 사드락 수라프라나타(Sadrach Surapranata)가 그러한 인물이다. 압둘 마시는 헨리 마틴의 전도를 받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인도 무슬림이었다. 그는 1820년에 루터파 목사직임을 받았고, 1825년에는 이슬람에서 개종한 최초의 성공회 사제로 안수 받았다. 약한 몸 때문에 그의 사역 기간은 짧았지만, 그는 탁월한 전도자였다. 아그라(Agra)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40명 이상의 무슬림을 전도하기도 하였다. 그는 무슬림들에게 모세오경과 복음서를 설

명해 줌으로서 이슬람의 뿌리가 성경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결코 이슬람 선지자들을 비방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과 비교할 만한 이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또한 찬송가를 토착 음악으로 손수 작곡하기도 하였다.<sup>30</sup> 하지만 그의 방법은 1827년 그가 세상을 떠나자 곧 잊혀졌다. 필 파샬은 19세기에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드락 수라프라나타이라는 인도네시아인을 소개하는데, 그 역시 압둘 마시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7,500명의 MBB이 참석하는 교회를 일으켰다.<sup>31</sup> 그러나 네덜란드 선교사들은 그를 혼합주의적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의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방법 역시 잊혀졌다.

상황화된 전도가 무슬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셉 커밍(Joseph Cumming)이 경험한 두 가지 사례가 잘 보여준다. 그는 9/11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달 후 이집트의 알 아즈하르(al-Azhar) 대학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는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는 초청받았다. 긴장된 상황에서 민감하고 논쟁적인 주제였지만, 그는 그 주제에 대한 무슬림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그러한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관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한 접근은 강당을 채운 학생들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고, 마침 한 여학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꾸란이 어떻게 가르치는 것과 무슬림들이 어떻게 믿는 것을 강의했는데 그럼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싶다는 질문을 던졌다. 조셉 커밍은 그날 강당을 가득채운 교수와 학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변화시켰는지를 설명했는데, 그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기립박수를 보내주었다.<sup>32</sup>

조셉 커밍은 그가 이슬람 무장 그룹인 헤즈볼라(Hezbollah)를 설립한 아야톨라 셰히 파들알라(Ayatollah Sheikh Fadlallah)와 나누었던 두 시간의 대화에 대해서도 들려준다. 조셉 커밍은 파들알라와 면담을 요청하고 5분의 시간을 허락받았지만,

30. 앤 쿠퍼, 『우리형제 이스마엘』(서울: 두란노, 1992), 170-171.

31. 필 파샬(2003), 68-69.

32. Joseph Cumming, "Toward Respectful Witness", in J. Dudley Woodberry ed., *From Seed to Fruit: Global Trends, Fruitful Practices, and Emerging Issues among Muslims*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2008), 312-314.

후세인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자 파들알라는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두 시간이나 그 문제에 대해 자신과 대화를 나누었다.<sup>33</sup> 그가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설명을 마쳤을 때 파들알라는 사무실에 함께 있던 직원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 그리스도인이 말한 모든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sup>34</sup>

이런 사례들은 적절히 상황화된 전도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상황화된 전도가 문화적인 장애를 없애려고 너무 멀리 가거나 극단적인 형태를 취할 때는 오히려 복음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압둘 마시와 사드락의 전도방법에 대해서 구 사역자들이 보인 반응이 서구의 우월적이고 자문화 중심주의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면, 필 파살이 제시하는 사례연구는 지나친 상황화가 보여주는 위험성과 혼돈을 보여준다.<sup>35</sup> 필 파살이 소개하는 사례연구는 C5 형식의 전도가 시행된 아시아의 한 무슬림 국가에서 4,500명의 무슬림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조사대상의 45%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31%가 매일 한 번 이상 모스크에 가서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기도를 하며, 66%가 성경보다 꾸란이 위대한 책이라고 인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C5 형태의 방법이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결과가 이러하다면 상황화라기 보다는 혼합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다. 상황화된 전도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려는 무슬림들의 문화에 맞게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이지 복음을 이슬람과 혼합시켜 복음과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sup>36</sup>

과도한 내부자 운동은 혼합주의의 위험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안드리아스 마우러는 내부자 운동과 같이 과도하게 설정된 상황화는 오히려 오해를 만들어 내어 그것이 무슬림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기만적 속임수나 스파이적인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

33. 시아파 무슬림들은 알라가 알리의 아들 후세인을 도와 원수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게 함으로서 위대한 승리를 얻도록 했다고 믿는다.

34. Joseph Cumming(2008), 315-317.

35. 필 파살(2003), 77-79.

36. C1-C6 스펙트럼은 존 트라비스(John Travis)의 의해서 제시된 것으로서, 무슬림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유형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존 트라비스, “C1에서 C6 스펙트럼,” 키스 스와트리 편저, 정옥배 역, 『인카운터 이슬람』(서울: 예수전도단, 2008), 402-405 를 참조하라.

다고 경고한다.<sup>37</sup> 터키와 같이 천년 이상을 기독교와 공존하며 전통적인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내부자운동이 이슬람을 내부에서와 해시키려고 하는 위선적이고 새로운 속임수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교회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보아오다가 이슬람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혼란을 일으킨다. 터키 개신교회가 내부자운동의 일환으로 서구의 한 단체가 주도해서 번역한 마태복음을 두고 보인 반응은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하겠다. 2012년 초 터키 개신교 협회(TEK) 신안심이 깊은 무슬림들을 염두에 두고 번역된 마태복음이 복음의 내용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있으므로 “절대로 수용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으며 동의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sup>38</sup>

‘상황화된 전도’에서 의미하는 ‘상황’에는 이슬람적 요소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이 이전부터 기독교나 교회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지식, 정보 등도 포함되어야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터키나 중동의 여러 이슬람 사회에서와 같이 이슬람 이전부터 기독교가 존재했고 무슬림과 그리스도인 그리고 모스크와 교회가 서로 나란히 1,000년 이상 공존해 오고 있는 곳에서 C5나 C6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반상황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지역에서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열매를 거두고 있는 CPM<sup>39</sup> 전략이나 CAMEL<sup>40</sup> 전도법 역시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런 형태의 일반적인 적용은 오히려 상황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지역에서는 C3의 형태를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필자가 말하는 ‘상황화된 전도’는 지역이나 사회적 상황, 역사적 경험 그리고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에 따라 복음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상황화된 전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슬람에 대한 개론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른 독특한 이슬람 이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각론의 연구

37. 안드리아스 마우러, 이승준, 전병희 역, 『무슬림 전도학 개론』(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225.

38. 이 성명서는 터키 개신교 협회에 속한 모든 회원 교회뿐만 아니라 터키에서 활동하는 외국선교 단체 대표들에게도 전달되었다. 성명서 내용의 핵심은 새로 번역된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대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대신 ‘주인’이라고 번역하는 등 성경의 핵심적인 용어들을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바꾸어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켰다는 것이다.

39. David Garrison, *Church Planting Movements* (Bangalore India: WIGTTake Resources, 2004).

40. Kevin Greeson, *Camel Training Manual* (Bangalore India: WIGTTake Resources, 2004).

를 필요로한다. 상황화에 대한 논의는 광범위한 주제이고, 본 논문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대로 상황화된 전도는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것을 쉽게 하고, 그들을 자신의 공동체에서 뿌리 뽑거나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킨다는 사실이다.

### 3. 분명하고 담대한 복음제시

무슬림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사역자들은 ‘무슬림 전도는 전략이 아니라 삶으로 승부를 걸어야한다’는 말을 자주한다. 이 말은 분명 사실이다. 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이 무슬림들에게 미치는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무슬림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복음을 소극적으로 전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존중과 사랑은 소심함과 다르다.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하는데 무례함과 무지 만큼이나 소심함과 주저도 문제가 된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사례연구들은 담대한 전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앞에서 인용한 동남아 무슬림 미전도 종족의 사례는 100%의 무슬림 사회에서도 개인 전도는 모든 곳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고,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 대상이던 118명의 응답자 대부분이 개인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sup>41</sup> 그들 가운데 36%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가족이라고 대답하고 있고, 25%가 목사나 전도자라고 응답했다.<sup>42</sup> 물론 이러한 사례를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담대하고 분명한 개인적인 전도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진 마리 고돌(Jean-Marie Gaudeul) 역시 그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부분의 회심자들은 그들에게 성경을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에게 회심한 무슬림들은 다양하고 특별한 방법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

---

41. P.I. Barnabas (2010), 263.

42. P.I. Barnabas (2010), 266.

지만,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끈 결정적인 순간은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였을 때였다.<sup>43</sup>

이러한 사실은 무슬림 전도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우정 전도법’(friendship evangelism)을 재고하게 한다. 많은 사역자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는 경우는 아주 희박하다. 무슬림들 가운데 오랫동안 사역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한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이 우정전도를 선호하는 이유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편안하고 안전한 사역이며, 사역자들이 바라는 생활양식에 잘 부합되기 때문이다. 무슬림 전도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에 대해 연구한 로랜드 물러(Roland Muller)는 “성공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여러 복음 전도자들을 분석하고 발견한 가장 큰 공통점은 지금 중동에서 사역하는 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우정 전도법’을 그 어느 누구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한다.<sup>44</sup> 그렉 리빙스톤(Greg Livingstone)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정 전도법이 무슬림 전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까지 주장한다.<sup>45</sup> 필자 역시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 2백만 이상이나 되는 터키의 큰 도시에서 교회개척에 주력한 우리 팀이 우정전도나,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 얻은 결실은 거의 없었다.

우정전도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친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가까운 주위 사람들에게 선교사로서의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로랜드 물러는 우정전도가 가지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사역자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포기해 버리고, 복음에 대한 건전한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탄한다.<sup>46</sup>

사역자가 무슬림들을 친구로 삼고 우정을 맺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전도를 목적으로 우정을 쌓아 삶으로 승부를 거는 전도법에는 한계가 있다. 무슬림 친구들을 만

43. Jean-Marie Gaudéul(1999), 45.

44. 로랜드 물러, 임하나 역, 『모슬렘 선교를 위한 도구들』(서울: WEC 출판부, 2002), 26.

45. Ibid., ‘추천의 글’에서 재인용.

46. Ibid., 29.

음의 결단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삶의 수준’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고, 10년 이상 좋은 친구로 지속된 관계가 전도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애당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정도의 우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한 사역자가 맺을 수 있는 관계의 폭도 제한되어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몇 가정 이상과 지속적인 우정을 나누는 것은 쉽지 않다. 친밀하긴 하지만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시간낭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결실을 맺은 대부분의 전도는 처음 만나 보낸 짧은 순간에 그 성공여부가 판가름 났다. 사역자가 무슬림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은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슬림을 만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야 하지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책임만큼이나 무슬림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만나는 무슬림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공격당한다는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하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무슬림들 가운데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열매를 거둔 사역자들은 공통적으로 담대하고 분명한 복음 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로랜드 물러는 무슬림 전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역자가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는 것과 자신이 영적인 진리와 지식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sup>47</sup>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담대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sup>48</sup> 안드레아스 마우러가 무슬림 전도를 위한 실제적인 지침으로 제시하는 ‘10가지 기본적인 규칙’에는 “자연스럽고 공개적으로 말하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sup>49</sup> 다니엘 싱클레어 역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무슬림 전도를 위한 17가지 비결’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세 가

47. 찰스 마쉬는 의사였음에도 자신이 사역했던 무슬림들에게 ‘의사’로 알려지기보다, ‘선생님’으로 알려졌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그에게 오는 무슬림들이 그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찰스 마쉬(1995), 98).

48. 로랜드 물러(2002), 31-35. 그는 자신의 방식을 ‘가르침을 기초로 한 전도’라고 정의하면서, 자신이 제시한 방식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일반적인 삶의 스타일을 통한 전도-우정전도- 가르침을 기초로 한 전도-선포식 전도-대결식 전도”라는 도식을 통해 보여준다.

49. 안드리아스 마우러(2011), 232-235.

지가 담대하고 분명한 복음제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다.<sup>50</sup> 그는 이슬람 문화에서 영적인 일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것은 터부가 아니며,<sup>51</sup>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삼십 분 안에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어야하며, 보다 담대하고 보다 선지자적인 유형의 증인이 조심스럽고 간접적인 접근보다 효과적이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한다. 데이비드 그린리와 팜 윌슨(Pam Wilson)은 4년에 걸쳐 무슬림들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을 대상으로 ‘무슬림 전도에 열매를 맺게 하는 20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조사한 후, ‘상황화된 전도’와 ‘담대한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sup>52</sup> 신장 무슬림들 가운데 사역하는 한국 사역자들 역시 선교전략에 있어서 무엇보다 많은 현지인들을 만나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sup>53</sup>

성공적으로 무슬림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는 모두가 다양한 상황가운데서, 다양한 방법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설교가 요 교사였다. 그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복음에 대해 말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고 언제든 말할 수 있었다. 그러한 방법이 결실을 맺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령이 가르치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어느 종교를 믿든, 어떠한 사람이든 그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께서는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신다. 선포가 없으면 회심도 없고 거듭남도 없다. 듣지 못한 이를 믿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명령하셨고 그것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신다.

50. 다니엘 싱클레어, 채경락 역, 『열방이 주께 나아오다』(서울: 좋은씨앗, 2008), 198-209.

51. 저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무슬림 사회에서 종교적인 문제를 꺼내는 것은 자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종교적 문제를 꺼내는 것을 거부하게 여기는 것은 서구나 서구의 영향을 받은 세속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필자 역시 어느 곳에서도 영적인 문제를 대화의 주제로 꺼낼 수 있었고 처음 대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 진지하게 반응해왔다.

52. David Greenlee and Pam Wilson, “The Sowing of Witnessing,” in J. Dudley Woodberry ed., *from Seed to Fruit: Global Trends, Fruitful Practices and Emerging Issues among Muslims*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2008), 111-124. 이 보고서는 2007년 태국에서 ‘Global Trends, Fruitful Practices and Emerging Issues among Muslims’이라는 주제로 무슬림들 가운데 사역하는 500명 이상의 베테랑 사역자들이 모인 협의회(consultation)에서 발표되었다.

53. 중국 신장 선교연구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의왕: 캄인출판사, 2012), 85.

## V. 결론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아오는 것을 보는 것은 막연한 기대나 꿈이 아니다. 무슬림 선교를 하는 사역자들은 언제까지나 땅을 갈거나 씨를 뿌리는 정도로 만족하고 지낼 수 없다. 무슬림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재생산해 나가는 것은 가능한 비전이다. 어떤 사역자는 빈손으로 돌아오지만, 어떤 사역자는 이전 보다 낫은 결실을 거두고 있다. 물론,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지역적 차이들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들이 사역자들에게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도 거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슬람은 하나라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양함에 놀라게 된다.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처해있는 환경에 따라 이슬람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달리한다. 그러한 차이가 어떤 지역에서는 미미하게 보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아프리카의 민속 이슬람을 신봉하는 무슬림과 아랍의 원리주의 무슬림 그리고 미국의 블랙 무슬림과 서남아 무슬림 사이에는 공통점과 함께 큰 차이점들도 존재한다. 그러한 차이점들은 무슬림 전도에서 중요하다. 그것들이 복음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도방법이나 접근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슬람권 사역자들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그러한 점을 확인하게 된다. 동일한 방법이나 접근법이 상황이나 토양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본 논문은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개인적 동기의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을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게 한 공통분모를 찾아 그것을 무슬림 전도를 위한 기본원리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역사적 사례와 경험적 사례연구를 통해 얻게 된 결과는 무슬림들은 아주 다양한 동기와 형태로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며, 다양한 관계적, 지적 그리고 초자연적인 동기들에 반응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한 특정한 무슬림 공동체에서 효과를 거둔 전도방법이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무슬림 공동체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아온 무슬림들의 회심에서는 세 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발견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삶이 미친 영향과 상황화된 전도방법 그리고 담대하고 분명하게 제시된 복음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소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되었을 때 풍성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사역자들의 삶과 태도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무슬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내용으로 분명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복음의 내용이 적절하게 상황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랑과 존중이 동반되지 않은 담대한 선포는 거부감과 저항감만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무슬림들을 위한 전도는 위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가 강조되기보다, 이 세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효과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 ● REFERENCES CITED

- 다니엘 싱클레어. 채경락역. 『열방이 주께 나아오다』서울: 좋은씨앗, 2008.
- 데이빗 그란리. 김요한역. 『곧은 길에서 좁은 길로』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10.
- 안드리아스 마우러. 이승준, 전병희역. 『무슬림 전도학 개론』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 앤 쿠퍼. 『우리형제 이슬마엘』서울: 두란노, 1992.
- 키스 스와틀리. 정옥배역. 『인카운터 이슬람』서울: 예수전도단, 2008.
- 존 사전트. 원광연역. 『헨리 마틴의 생애와 일기』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 중국 신장 선교연구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의왕: 캄인출판사, 2012.
- 찰스 마쉬. 조은혜 역. 『사랑으로 가능한 길』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1995.
- Cumming, Joseph. "Toward Respectful Witness", J. Dudley Woodberry ed. *From Seed to Fruit: Global Trends, Fruitful Practices, and Emerging Issues among Muslims*.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2008.
- Garrison, David. *Church Planting Movements*. Bangalore India: WIGTTake Resources, 2004.
- Gaudeul, Jean-Marie. *Called from Islam to Christ*. Crowborough: Monarch Books, 1999.
- Greenlee, David and Wilson, Pam. "The Sowing of Witnessing," J. Dudley Woodberry ed. *from Seed to Fruit: Global Trends, Fruitful Practices and Emerging Issues among Muslims*.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2008.
- Greeson, Kevin. *Camel Training Manual*. Bangalore India: WIGTTake Resources, 2004.
- Massey, Joshua. "God's Amazing Diversity in Drawing Muslims to Christ," *International Bullentin of Missionary Research*, Vol. 17 No. 1(2000), pp. 3-12.
- Muratoğlu, Davut. *Neden Hristiyan Oldular?* İstanbul: Müjde yayıncılık, 2002.
- Nehls, Gerhard. *Premises and principles of Muslim Evangelism*. Bombay: Life Challenge, 1991.
- Zwemer, M. Samuel. *The Cross Above the Crescent*. Grand Rapids: Zondervan, 1941.

